

야구·배구

4

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스포츠동아



허규연 위원의 인프라 사랑 베트남야구협회 꽃 피운다

권동혁 감독과 함께 볼모지 개척 기여

한국인들 주도로 '볼모지' 베트남에도 야구협회가 설립 단계에 접어들었다. 진짜 스포츠 강국의 기준은 단순히 성적만이 아니다. 인프라, 문화 전파 등에 앞장서는 것도 강국의 기준이다.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월 베트남 야구협회 창설을 공식 승인했다. 이제 현지인으로 구성된 이사진을 꾸린다면 베트남 야구가 본격적으로 국제대회 정식 경쟁국이 된다. 이 과정에는 허규연 MBC 해설위원(68)과 권동혁 감독(50)의 공이 숨어 있다.

허 위원이 야구 볼모지 개척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은 2010년이다. 한국은 2008베이징 올림픽과 2010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연이어 우승했음에도 '아시아 야구 선진국'으로서 역할은 미진했다. 강승규 당시 대한야구협회 회장이 아시아야구연맹(BFA) 총회에서 회장에 선출됐고, 허 위원을 기술위원장으로 선임하면서 변화가 감지됐다.

'볼모지' 베트남은 2011년 동남아시아게임 야구 대회에 처음 출전했다. 당시만 해도 협회가 없었기 때문에 준가맹단체인 호치민 시 야구단 자격으로 참가했고, 유니폼조차 만들지 못할 여건이었다. 허 위원이 급히 사재를 털었고, 베트남 야구의 사상 첫 국제대회 유니폼을 제작했다. 이후에도 꾸준히 베트남에 용품과 금액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국가공인협회가 없었기 때문에 돈이나 용품이 중간에 새는 경우가 잦았다. 기부금 처리도 안 되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난색을 표했다. 허 위원은 베트남 현지에서 야구팀을 이끌고 있는 권동혁 감독과 수년 전부터 협회 창설을 위해 뛰었고 11년 만에 성과를 봤다.

'수입국'에서 '수출국'으로, 한국의 위상 변화는 스포츠계에서도 마찬가지다. 박항서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 감독은 외교관 역할을 자처하며 한국의 스포츠 품격을 높였다. 이에 반해 야구는 부족했던 게 사실이다. 허 위원은 이미 캄보디아에 '허규연 필드'를, 베트남에 'KKB하나은행필드'를 만들었으며 이번 베트남 야구협회 출범에도 기여했다. '라오스 야구의 아버지'로 불리는 이만수 전 감독도 있다. 미얀마만 가세한다면 태국과 더불어 인도차이나 반도 5개국의 국제대회도 기대해볼 만하다.

최근 만난 허 위원은 "축구에서 박항서 감독이 그렇듯 '야구판 스프링캠프'이 언젠가 시작된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이라며 "이만수 감독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권동혁 감독도 마찬가지다. 이들과 함께 해보겠다"고 다짐했다.

최익래 기자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누구보다 바쁜 겨울 보내는 LG 한선태



중·고교 야구부에 속하지 않았지만 프로 무대에 발을 디뎠다. 2019년 LG 한선태는 그 자체가 역사였다. 이제 한선태는 드라마를 일상으로 바꾸길 원하고 있다. '비선출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당당히 프로로 대접받길 원하고 있다.

스포츠동아DB

“내년엔 실력으로 비선출 꼬리표 떼야죠”

올 시즌 부상으로 등판 6경기뿐 스프링캠프 동안 골반 강화 훈련 “2020시즌 1군서 시작하고 싶어”

인간승리의 드라마였다. KBO리그 38년 역사상 초·중·고 엘리트 야구부를 거치지 않은 선수가 프로에 입단해 1군에서 공을 뿌린 건 2019년 한선태(25·LG 트윈스)가 최초였다. 이제 한선태는 드라마를 일상으로 바꾸는 걸 목표로 삼았다. '비선출'이라는 꼬리표 없이, 똑같은 프로 선수 중 한 명으로 보이길 원하고 있다.

최근 한선태의 스케줄표는 빼곡하다. 11월 28일 LG가 매년 진행하는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 활동은 물론 각종 시상식과 팬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몇몇 시상식에서는 특별상도 수상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모습이다. 사실 1군 6경기에 등판한 투수가 어떠한 이유에서든 상을 받는 건 다소 드문 광경이다. 이는 한선태가 만들어낸 결과보다 배경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일반 고교를 졸업한 한선태는 군 전역 후 사회인 야구를 하던 중, 2017년 독립리그 파주 챌린저스에서 본격적으로 선수 도전의 길을 걸었다. 일반인이 140km대 중반의 속구를 던진다는 것 자체로 관심을 끌었고, 2018년 일본 독립리그 도치기 골든브레이브스에 입단한 뒤 2019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LG의 지명을 받았다. 데뷔 첫해 1군에서 6경기에 등판해 7.1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3.68을 기록했다. 8월 이후 골반부상으로 추가 등판은 없었지만 이 자체로 스토리였다. 짧은 야구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은 부상이었다.

최근 '스포츠동아'와 만난 한선태는 "본격적인 치료과정에 접어들면서 골반이 왜 아픈지를 알았다. 이제 같은 실수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다.겨우내 목표도 골반 강화"라며 "최일언 투수코치께서 '스프링캠프에서 몸을 만들면 낫다'고 조언 해주셨다. 완성된 몸으로 캠프지에 떠나고 싶다. 겨우내 공도 던지고, 쉬 없이 운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 독립리그는 팬 베이스가 열악하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모내기를 돕거나, 역 앞에서 선수들이 직접 홍보를 한다. 때문에 한선태는 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어색하지 않다. 6월 25일 1군 첫 등판 당시에는 팬들의 눈을 피할 만큼 긴장했지만 이제는 농담도 주고받을 만큼 능숙해졌다. "LG는 국내 최고의 인기 팀 아닌가. 1군은 물론 2군이 있는 이천까지도 오시는 팬들이 많다. 그분들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에는 진심이 묻어났다.

사실 한선태에게 '비선출'은 꼬리표처럼 다가온다. 잘할 때면 '비선출이 제법 이네'라고 평가받으며, 반대의 경우에는 '역시 일반인이 그렇지 뭐?'라고 낙인이 찍힌다. 한선태는 "같은 LG 선수 중 한 명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 내가 못하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이지 출신 탓은 아니다"라며 "그런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2020년에도 활약하고 싶다"고 다짐했다.

목표는 단출하다. 우선 2020년 시작을 1군에서 맞이하는 것이다. 시작점에 만족하지 않고 꾸준히 좋은 모습을 보인다면 점차 보직이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다. 드라마를 일상으로, 한선태가 또 다른 도전의 발판을 세웠다.

최익래 기자 ing17@donga.com

두산 1차지명 이주엽 “즐거는 마인드가 내 강점”

최고구속 140km대 후반 우투수 프로 첫해 앞두고 체력보강 훈련

2020시즌 두산 베어스의 1차지명 신인 이주엽(18·성남고)은 자신의 장점을 어필하는 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다. 패기 넘치는 두산의 팀 컬러와도 잘 어울렸다. 이주엽은 키 188cm, 체중 88kg의 당당한 체격을 지닌 우투수다. 올해 포심 패스트볼(포심) 최고구속도 140km대 후반까지 끌어올리며 가능성을 입증했다. 비시즌엔

는 기술적인 부분보다 체력 보강에 초점을 맞춰 프로 첫해를 준비하고 있다. 이주엽은 "프로 무대에서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처음 야구를 시작해 중학교 때까지 야수도 병행했다. 초등학교 때 3루수, 중학교 때는 중견수로 나서기도 했다. 투수에 전념한 시기는 성남고 1학년 때부터다. "서서히 힘이 붙으면서 야수보다 투수가 좋다고 판단했다. 빠른 공을 던질 수 있으니 그만큼 자신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주엽

'강한 멘탈(정신력)'을 강점으로 꼽았다. 이주엽은 "강한 멘탈과 야구를 즐기는 마인드가 내 강점"이라며 "하드웨어도 좋고

빠른 공도 던질 수 있다. 기회를 주신다면 어떤 보직이든 다 해낼 것이다"고 밝혔다. 덧붙여 "볼 모델은 이영하 선배다. 짧은 나이에 선발진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멋지다. 꼭 뒤를 잇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두산에 대한 애착도 가장 없지 않았다. "어렸을 때 TV 중계를 틀면 두산은 항상 이기고 있는 팀이었다. 그만큼 야구를 잘한다는 이미지가 강했고, 실제로도 그렇다"고 밝힌 이주엽은 "팬들이 야구장에서 선수들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는 모습도 마음에 와 닿았다. 마운드에서 자신감 있게 투구하는 모습과 항상 미소를 머금은 표정에 주목해주시면 좋겠다"고 활짝 웃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배구

대한항공 복덩이 비예나 “전 경기 출전이 목표”

외국인 중 유일하게 전경기 소화 419득점 등 공격 지표 선두 점령



대한항공에 골려들어 온 복덩이다. V리그 첫 시즌 만에 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로 거듭난 안드레스 비예나(26)는 꾸준함을 약속한다.

올 시즌 남자부 7개 구단 외국인 선수들 중 유일하게 풀타임을 소화 중이다. 16일까지 16경기를 뛰며 팀 내 41.92%의 공격 점유율을 책임졌다. 득점(419점), 공격 성공률(56.98%), 서브(경기당 0.597개) 등 각종 공격 지표 폭대기를 점령하고 있다. 타 구단들이 외국인 선수 부상으로 허덕일

때, 대한항공은 비예나의 화려한 비상에 발 맞춰 리그 선두(승점 33)로 순항해왔다.

성실한 훈련에서 비롯된 결과다. 대한항공은 팀에 처음으로 합류했던 비예나를 보고 적잖이 놀랐던 기억이 있다. 훈련 시간에 맞춰 연습장에 나타나는 보통의 외국인 선수들과 달리 비예나는 숙소에서 30분 혹은 1시간씩 먼저 개인적으로 몸을 풀 뒤 오후 훈련을 시작했던 까닭이다. 이에 관해 "무릎과 어깨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 오래 전부터 지켜온 루틴"이라고 밝힌 비예나는 "다른 팀 용병들은 부상으로 인해 말이 많았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싫다. 아프지 않고 꾸준하게 전 경기를 치르고 싶다"고 털어놓았다.

빠어난 배구 센스를 두고도 칭찬 일색이

다. 상대의 흐름을 읽으며 재빨리 적절한 수비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거나 힘겹게 연결된 공을 명민하게 득점으로 이어내기 때문이다. 덕분에 디그 성공률은 68.38%에 이른다. 자연스레 '배구를 알고 하는 선수'라는 평가가 주를 이룬다. "수비는 본능적인 움직임이다. 다만 영리한 배구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하며 오히려 "나를 도와주는 훌륭한 팀원들이 많다. 대한항공에 온 것은 행운"이라고 말한다.

비예나는 "최하위 팀에게도 절대 방심할 수 없는 것이 한국 배구의 매력이다. 팬들의 뜨거운 함성 소리가 좋다"며 웃는다. 이런 그는 "매 경기를 마지막 경기처럼 여긴다"는 간절함을 내려놓지 않는다.

서대영 기자 seody3062@donga.com



대한항공 안드레스 비예나